

■ 무용분야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- 상반기 무용분야
- 회의일시 : 2018. 06. 07(목) 14:00~16:00
- 회의장소 :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

가. 2018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-상반기 무용분야 지원 공모에는 총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. 이 중 심의 제외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를 제외 한 뒤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심의는 서류검토 및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연작품의 규모와 예술성 및 서울, 지방, 극장의 크기(대극장, 소극장), 한국무용, 발레, 현대무용, 기타 등 공연제작의 환경과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9건이 선정되었습니다.

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과정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
- 심의 제외 대상 및 지원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단체 제외
 - 서류미비, 대표자, 신청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 등
- 전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상호간의 객관적인 정보 공유
 - 지방 공연장의 환경에 대한 이해 보충
 - 공연 작품의 질적 담보
 - 지역 무용계의 발전 등 고려
- 기본적인 심사기준 공유, 공연작품의 예술성, 공연단체의 역량, 지역 및 무용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우선적으로 고려
 - 행사성격의 대관보다는 예술단체와 예술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지원을 우선 함
 - 공연 사후 지원의 경우와 사전 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의 편차가 고려 심의
 - 심의 결과 80점 이하의 단체는 총대관료 80%의 지원 신청액에서 50%를 지원하기로 함

나. 2018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- 상반기 심의에서 심의 위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. 가능한 지원한 모든 단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 탈락한 단체는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.

또한,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지원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.

- 2018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상반기에는 서울(20건), 지방(4건)으로 지방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점
 - 지역 단체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
- 공연 전, 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
- 서류 제출 시 미비 사항 점검 등